

# 청년층 노동력과 일자리 변화

김복순\*

## I. 머리말

2014년에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가 화두였다면, 2015년에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 청년층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2014년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활동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이들 청년층에게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률만 보더라도 국제 금융위기로 우리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그 결과로 고용부진을 경험했던 2008~2009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얻은 청년층의 일자리는 어떠한가? 이들 일자리는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력이 노동시장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양적인 분석 이외에도 청년층 일자리의 질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 II. 청년층 노동력과 고용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청년층(15~29세)이 40%를 차지했으나, 2014년 현재 22.4%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 노동력 규모(=생산가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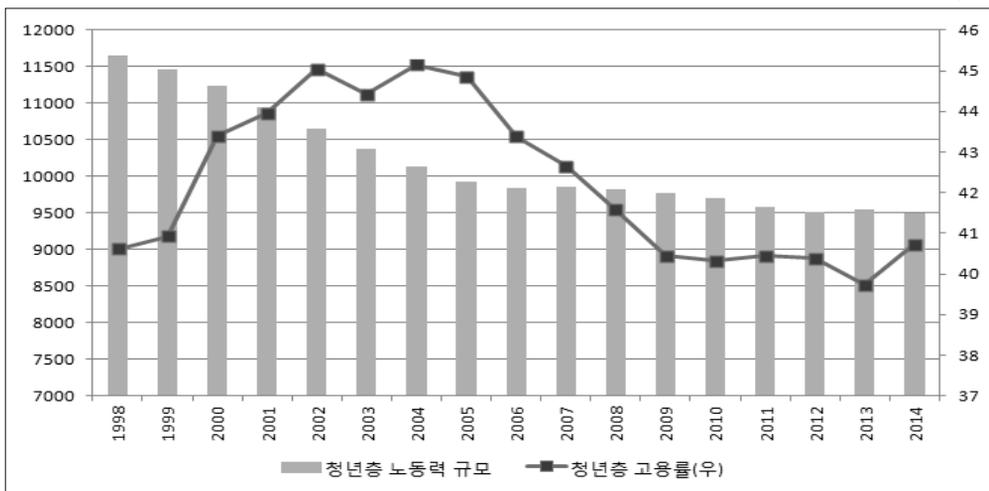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esaram@kdi.re.kr).

구)는 2005년 9,920천 명으로 천 만명대를 밑돌기 시작해서 2014년 현재 9,503천 명이다. 2000년대 초중반 이들 청년층 인구의 감소속도는 가파르게 빨라지다가 최근에는 -1.2~ -0.3%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 고용률은 '80년대 중반, 1998년 외환위기 때 40%대 초반까지 급락한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2004년 45.1%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에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데는 비구직 니트(NEET)의 증가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청년들의 직업의식과 인생관의 변화, 노동시장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림 1] 청년층 노동력 규모 및 고용률 추이

(단위: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고용률 지표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청년층 취업자 규모는 20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5년 8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2014년 청년층 고용률은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까지 겹쳐서 전년 대비 1.0%p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바로 직전만 해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46~48%대를 유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43%대까지 하락하였고, 이들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때 12%까지 치솟은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8% 내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4년에 9%대로 진입한 이후 2015년 2월, 3월 각각 11.0%, 10.7%를 기록하는 등 실업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세를 보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노력이 활발해졌으나, 어떻게 해서든 노동시장에 진입했다라도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현재 노동시장 환경이 청년층에게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청년층 노동력 규모 및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1997	1998	1999	2000	2003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5.3
인구증감	-19	-73	-190	-219	-221	12	-33	-41	-75	-72	-45	-29
취업자증감	-71	-617	-42	188	-129	-68	-119	-127	-43	-36	77	39
(취업자증가율)	-1.3	-11.5	-0.9	4.0	-2.8	-1.6	-2.8	-3.1	-1.1	-0.9	2.0	1.0
고용률	45.6	40.6	40.9	43.4	44.9	42.6	41.6	40.5	40.3	40.4	40.7	40.0
경제활동참가율	48.4	46.2	45.9	47.2	48.8	46.0	44.8	44.0	43.8	43.7	44.8	44.8
실업률	5.7	12.2	10.9	8.1	8.0	7.2	7.2	8.1	8.0	7.5	9.0	10.7
비경활 증가율	-0.1	3.5	-1.1	-3.5	-1.3	2.2	1.8	1.0	-0.5	-0.5	-3.2	-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4년 청년층 고용지표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노동시장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일자리를 얻든, 얻지 못하는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sup>,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만을 보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이 대견하기까지 하다. 누군가는 다양한 경험으로, 누군가는 필요한 스펙 쌓기 등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은 반면 누군가는 자신의 전공이나 경험과 관련이 적은 일자리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층의 일자리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최근 취업자 증가세는 견조하게 늘고 있는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다.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괜찮은 일자리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일선에서 행해지는 고용관행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에서도 2014년 상용직 증가율이 전년대비 2.5%를 기록하면서 상용직 비중이 2014년 56.1%까지 증가하였다. 청년층 제조업 내 상용직은 2014년 80.3%, 서비스업 내 상용직은 51.6%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상용직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 취업자의 8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인서비스 직종의 증가세가 2010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 증가한 2014년에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대인서비스 직종은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신체적 업무 특성을 가지는 직종으로 타인을 돌보거나

1) 총 일자리 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청년층 인구의 감소’ 그 자체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의 수를 줄여주는 요인에 해당한다.

지원하는 직업군들로 구성된다. 통계청 6차 표준직업분류의 경찰·소방 및 보안관련 서비스직(41), 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42),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43),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44),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94),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95)에 해당한다. 즉 음식준비·서빙, 청소, 간병, 경비, 가사, 이용, 보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병유(2015)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는 기술에 의해 대체하기 어려운 저임금 서비스직 일자리의 증가가 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70%가 서비스업종이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의 80%가 서비스업종이라는 것과 최근 대인서비스 직종 증가세는 청년층 저임금 일자리 증가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청년층 고용구조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3	2015.3
상용직	상용직 비중	46.2	46.2	47.4	48.6	51.5	52.4	52.3	53.8	54.8	55.0	56.1	56.3	59.0
	제조업 내 상용직 비중	73.6	75.4	72.9	75.7	75.9	76.5	77.1	77.8	79.1	78.9	80.3	82.2	81.2
	서비스업 내 상용직 비중	39.5	40.5	43.2	46.0	47.3	47.4	48.9	50.0	50.1	51.6	51.6	54.6	52.6
취업자	대인서비스 직종 비중	15.3	15.5	15.0	15.4	13.6	13.9	14.4	14.9	15.6	15.9	17.1	16.7	17.1
	제조업 비중	20.1	20.1	18.8	18.0	16.8	16.0	17.0	16.7	16.2	15.7	16.2	15.9	16.4
	서비스업 비중	73.9	74.1	75.4	76.9	78.1	79.0	78.4	79.1	79.3	79.9	79.5	80.0	79.7
	중소규모 비중	89.7	89.1	89.3	89.6	89.2	89.5	89.8	89.1	89.6	89.7	89.0	89.3	89.3

주: 대인서비스 직종은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성격의 신체적 업무 특성을 가진 직종으로 타인을 돌보거나 지원하는 직업군으로 구성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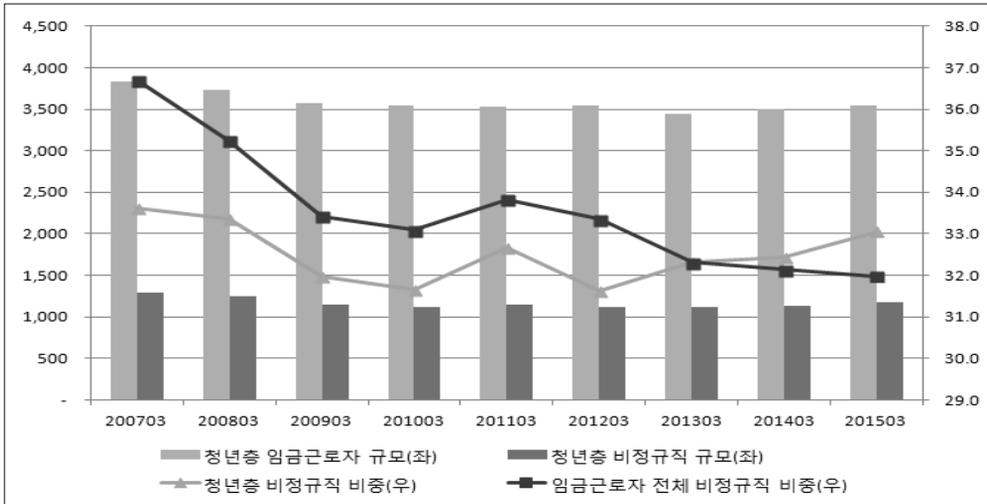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통계청에서 매년 3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으며, 오히려 증가추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현재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33.1%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변화는 대부분 전년대비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시간제 근로는 전년대비 15.5% 증가하면서 5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층에서의 시간제 근로 증가속도는 전체 임금근로자(0.1%)보다 확연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청년층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20-24세 연령층에서의 시간제 증가속도는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병유(2015),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양극화와 저임금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2〉 청년층 임금근로자·비정규직 규모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표 3〉 청년층 고용형태별 변화

(단위: 천 명, %)

	2007.03	2008.03	2009.03	2010.03	2011.03	2012.03	2013.03	2014.03	2015.03
임금근로자	3,826	3,733	3,567	3,549	3,531	3,551	3,441	3,508	3,544
비정규직규모	1,287	1,245	1,140	1,123	1,153	1,123	1,112	1,137	1,171
한시적근로	951	836	777	724	733	703	701	690	709
기간제	735	617	675	561	571	539	537	529	535
계약반복갱신	136	61	5	73	76	81	50	85	71
비전형근로	267	256	213	214	233	192	188	166	157
시간제	289	356	327	364	395	425	425	464	536
비정규직비중	33.6	33.4	32.0	31.6	32.7	31.6	32.3	32.4	33.1
시간제비중	7.6	9.5	9.2	10.3	11.2	12.0	12.3	13.2	15.1

주: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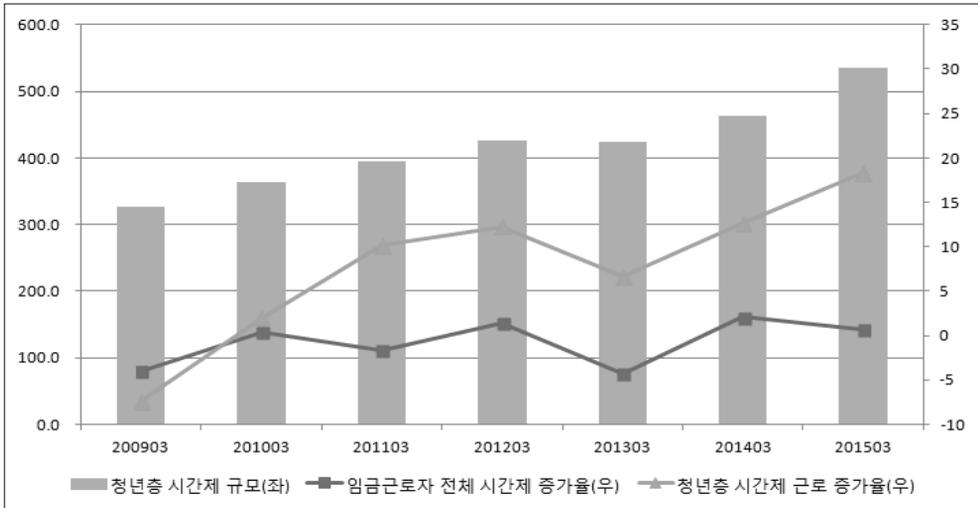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 시간제 근로를 보면, 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세 산업이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78%(2015년 3월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5년 3월 현재 청년층 근로자 10명 중 5명 정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특히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시간제 근로의 증가로 인해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림 3] 청년층 시간제 근로 규모 · 시간제 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표 4] 청년층 시간제 근로의 변화

(단위: 천 명, %)

		2007.3	2008.3	2009.3	2010.3	2011.3	2012.3	2013.3	2014.3	2015.3
시간제	규모	289	356	327	364	395	425	425	464	536
산업별	시간제 중 세 산업 비중*	71.7	67.5	75.2	71.5	71.6	76.6	71.9	75.8	77.7
	도·소매업**	8.8	10.0	10.8	10.9	13.1	12.3	16.0	16.6	17.3
	음식숙박업**	27.8	37.2	37.3	34.9	34.1	43.2	44.6	40.5	46.5
	교육서비스업**	17.2	18.1	19.8	22.2	27.7	31.9	24.0	28.9	34.0
연령별	15~19세	43.4	46.1	59.5	60.2	59.3	57.7	60.3	52.0	54.3
	20~24세	10.1	15.7	15.8	16.0	17.7	18.4	19.7	20.6	22.9
	25~29세	4.0	4.2	3.6	4.4	4.1	4.9	4.3	4.8	6.2

주: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시간제 근로자 전체가 청년층 시간제 근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청년층 산업 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한편 청년층 신규채용규모(=근속기간 3개월 미만)는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임금근로자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비중이 높아보니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청년층 신규채용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임시직 중심의 신규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청년층 신규채용 규모와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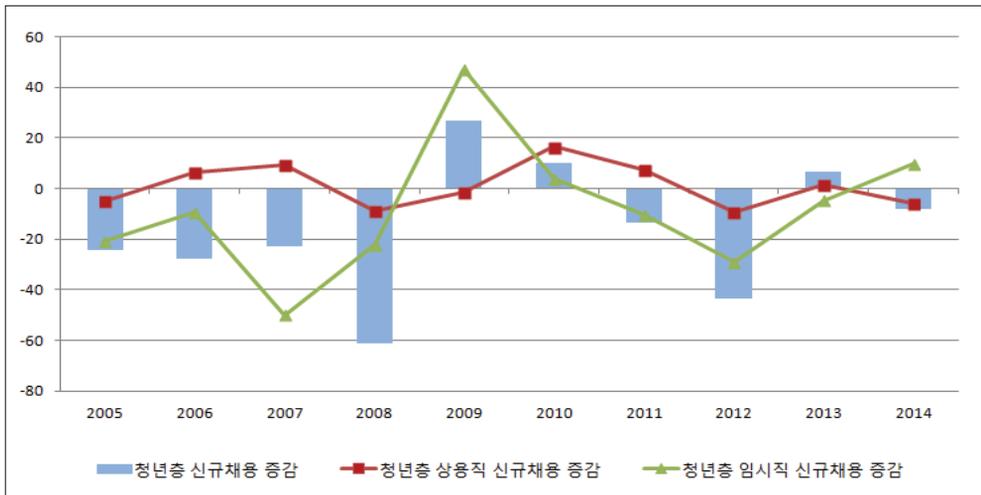
(단위: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3	2015.3	
임금근로자	2,693	2,785	2,843	2,738	2,828	2,837	2,757	2,649	2,612	2,610	2,834	2,930	
청년층	867	839	816	755	782	792	778	735	742	734	771	764	
증감	청년층	-24	-28	-23	-61	27	10	-14	-43	7	-8	43	-6
	중소규모	-19	-25	-19	-63	28	6	-17	-32	4	-5	44	-12
	대규모	-6	-3	-4	2	-1	4	4	-12	3	-4	-0	6

주: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청년층 신규채용 증감 및 증사상 지위별 신규채용 증감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층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졸업한 신규학졸자의 실업률은 33.9%로 청년층 전체 실업률(10.7%, 표 1 참조)의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접근이 있겠지만 신규학졸자의 실업해소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 미만인 반면 신규학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3월 현재 60%를 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과 실업률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년층 전체에서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신규학졸자의 상용직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비정규직 비중과 시간제 근로 비중 또한 청년층 전체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년층(15~29세) 중에서 일도 하지 않고, 일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표 7>에서 청

〈표 6〉 청년층 신규학졸자 고용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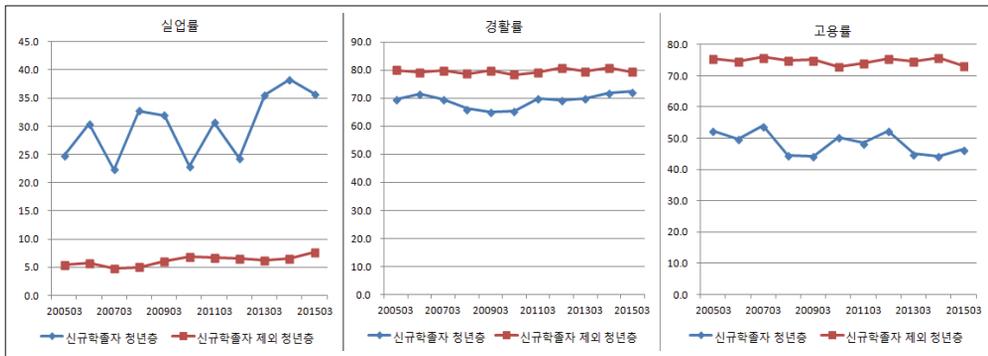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5.3	2006.3	2007.3	2008.3	2009.3	2010.3	2011.3	2012.3	2013.3	2014.3	2015.3
인구증감	-95	-63	-8	31	-2	-21	62	-0	-92	52	1
취업자증감	-46	-32	5	-18	-3	8	20	13	-47	29	-11
(증가율)	-16.5	-13.7	2.3	-8.6	-1.4	4.1	10.2	6.0	-21.2	16.6	-5.4
고용률	43.6	42.8	44.5	38.1	37.8	41.1	40.0	42.4	40.5	42.2	39.8
경제활동참가율	58.0	59.4	57.3	54.8	54.8	54.3	57.6	55.8	59.8	62.3	60.3
실업률	24.8	28.0	22.2	30.5	31.1	24.3	30.6	24.0	32.2	32.2	33.9
상용직 비중	46.3	46.1	54.1	52.7	43.0	47.4	52.1	55.1	51.2	54.7	4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신규학졸자·신규학졸자 제외 청년층의 실업률·경활률·고용률 추이(전문대졸 이상 학력층)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표 7〉 청년층(15~29세) 니트 규모 및 비구직 니트 규모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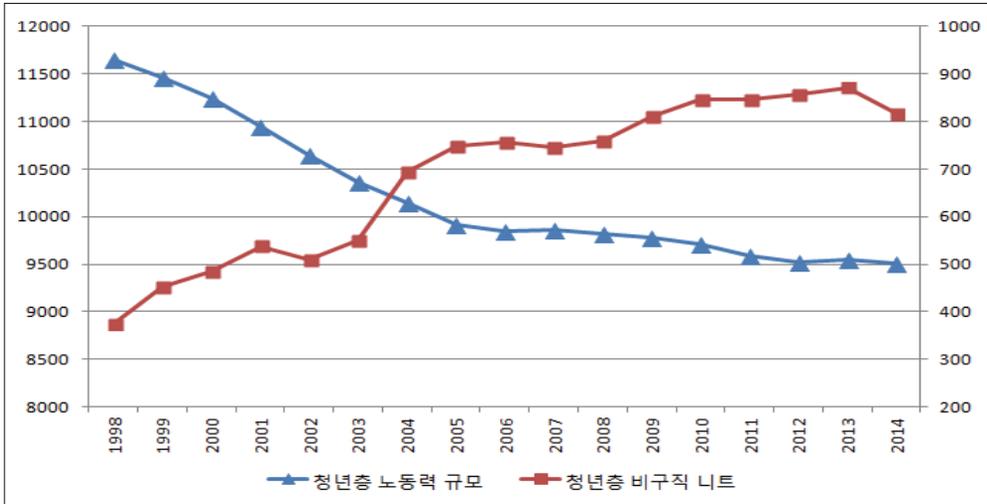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3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인구	11,651	11,461	11,243	10,368	9,855	9,822	9,780	9,705	9,517	9,503
니트	918	932	829	883	1,018	1,021	1,095	1,119	1,105	1,117
구직니트	545	480	345	332	273	262	285	273	249	302
비구직니트	374	452	485	550	745	759	810	845	857	815
(비구직니트 비중)	3.2	3.9	4.3	5.3	7.6	7.7	8.3	8.7	9.0	8.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니트는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고 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고, 배우자가 없는 15~34세의 개인(남재량, 2013)’을 의미하지만, 본고에서는 15~29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림 6] 청년층 인가와 청년층 비구직 니트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년층 중에서 15~29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니트는 2014년 현재 전년대비 소폭 감소(2013년 1,138천 명)했지만 약 백십만 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청년층 노동력의 비노동력화, 특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 상황,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 Ⅲ.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지금까지 양적인 분석을 통해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제는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3월 현재 22.2%로 전년대비 2.0%p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sup>4)</sup>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1년 3월 28.1%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에서도 2015년 3월 현재 전년대비 0.6%p 감소한 27.6%로 나타나 유사한 패턴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에서 저임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서비스 직종(=저숙련서비스 직종)에서의 청년층 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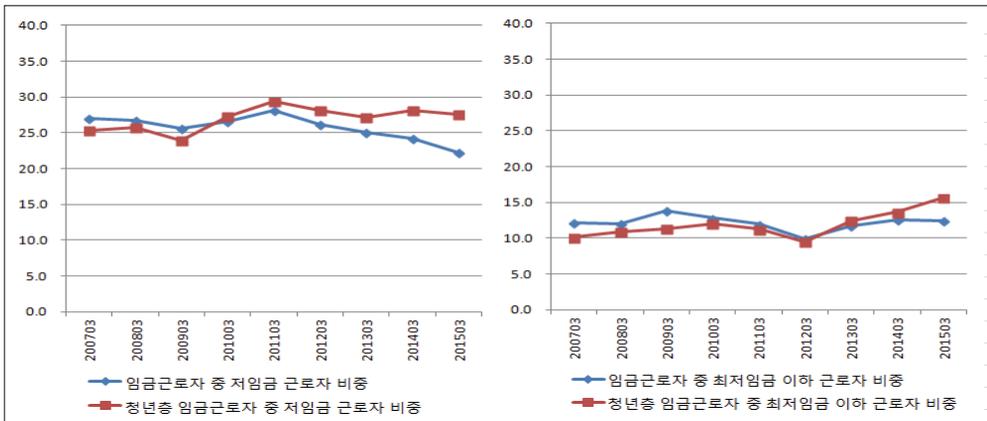
4)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특히 청년층 중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대비 1.9%p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시간제 근로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앞에서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보여 주는 추세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임금근로자 전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015년 3월 청년층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80.3%로 국제금융위기 때보다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저임금근로자 비중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표 8> 청년층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상대임금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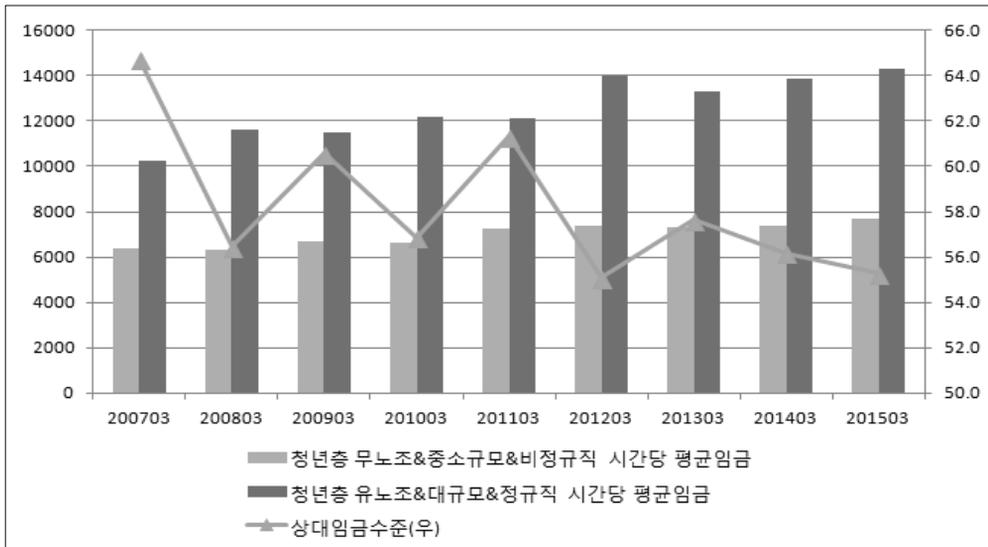
	정규 · 비정규				중소규모 · 대규모			
	임금 근로자	청년층	대졸 청년층	대졸 청년층 신규학졸자	임금 근로자	청년층	대졸 청년층	대졸 청년층 신규학졸자
2007. 3	73.2	95.0	98.5	102.9	54.3	69.9	76.0	87.6
2008. 3	67.3	85.6	84.3	91.0	54.5	68.3	79.8	72.7
2009. 3	63.9	87.0	87.4	84.1	54.0	70.3	76.9	74.8
2010. 3	62.3	83.9	85.1	72.8	51.8	66.8	74.9	83.1
2011. 3	65.2	88.3	95.9	99.4	53.9	69.9	77.2	71.9
2012. 3	66.5	85.1	87.5	95.0	53.4	66.1	71.4	80.9
2013. 3	63.5	80.9	85.7	105.0	54.0	70.3	76.5	69.4
2014. 3	65.5	81.3	85.2	99.1	54.4	66.9	76.6	71.9
2015. 3	64.4	80.3	81.0	62.7	55.0	70.5	83.6	75.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를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대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은 55.0%로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에서도 2007년 3월 조사 이래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4년제) 청년층의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대규모 사업체의 83.6%로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 안에서 꽤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유노조·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 대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무노조·중소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절반 수준(55.3%, 2015년 3월 기준)으로 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에다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까지 가중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청년층 무노조·중소규모 사업체·비정규직 근로자의 유노조·대규모·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 (단위: 천 원,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 IV.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분위별 변화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임금, 복지수준 등의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질(Job Quality)을 파악한다. 본고에서는 산업\*직종 셀에 해당되는 일자리의 시간당 중위 임금을 일자리 질의 기준으로 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U.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1996)와 Wright and Dwyer(2003), Goos and Manning(2003)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2008~2014년간 10분위별 고용증가율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첫 번째 자료는 통계청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로 산업\*직종 셀을 하나의 일자리(Job)로 보고, 각 셀에 해당하는 시간당 중위임금을 계산한다. 이 시간당 중위임금이 해당 일자리 질(Job Quality)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산출된 산업\*직종 셀별 시간당 중위임금을 두 번째 자료인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의 산업\*직종별 셀에 결합한 후, 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임금근로자를 10분위로 나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2년 기준 일자리 10분위를 가지고 2008~2014년까지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시계열은 9차 표준산업분류, 6차 표준직업분류가 제공되는 2008년부터 구축하여 분석하였다.<sup>5)</sup>

2008~2014년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된 중간일자리(4~8분위)에서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중간일자리 감소의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기간(2008~2014년)에는 중간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일자리 양극화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에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일자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상위일자리(8분위~10분위)의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난 것이다. 동기간에 분석대상인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3.7% 감소했는데, 상위일자리(8·9·10분위)가 무려 23.4%가 감소한 것이다. 이들 사라진 일자리는 교육서비스업과 제조업, 금융보험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25~29세 연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이 연령층에서의 인구감소가 컸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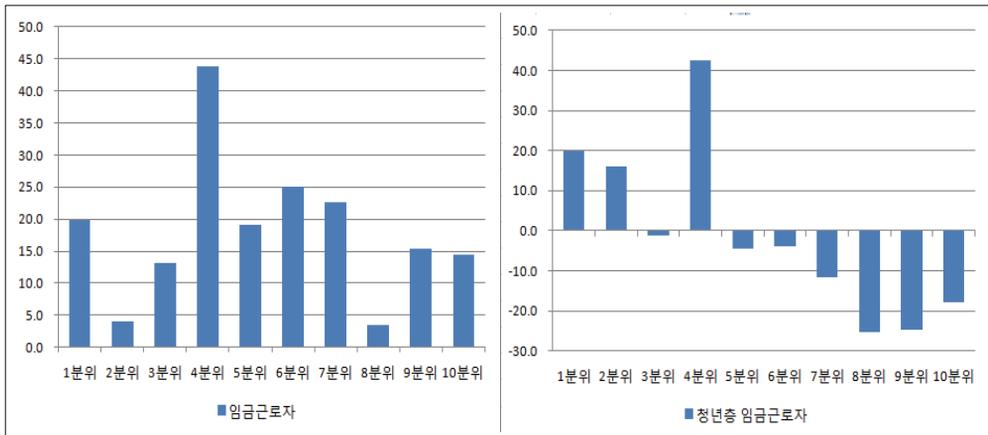
청년층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2013~2014년 일자리 변화를 보면, 2013년에 비해 10분위에 해당하는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청년층 고용

5) U.S.Council of Economic Advisors, 1996; Wright and Dwyer, 2003; Goos and Manning, 2003.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20~2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10분위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이들 증가한 10분위 일자리는 주로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출판·영상 등의 업종이며, 제조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 청년층의 일자리 변화에서 상위·하위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중간일자리가 다소 감소하고 있어 이 기간에 청년층에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9]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2008~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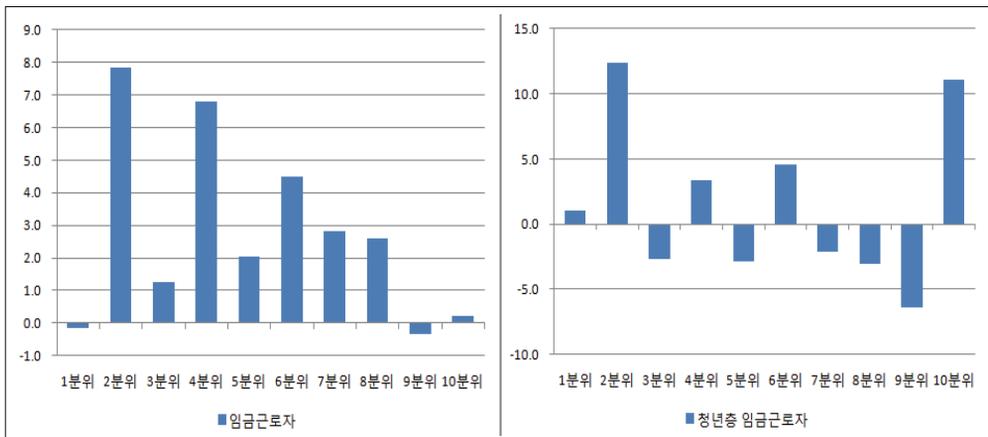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0]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2013~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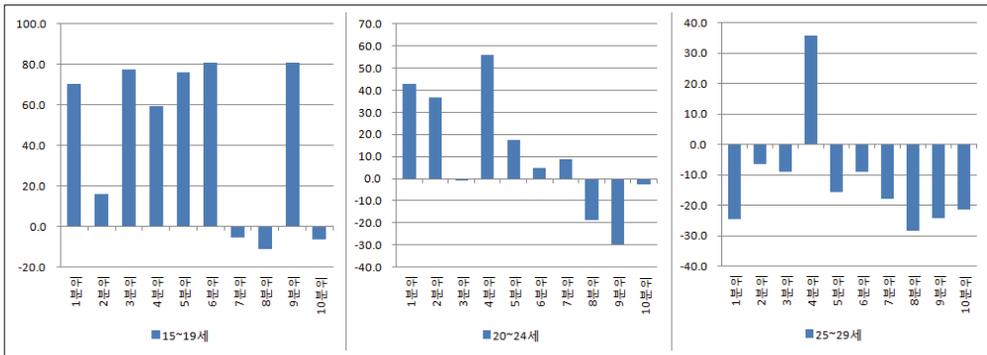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의 일자리 변화(2008~2014년)를 연령별로 세분해서 보면, 20대 연령층에서는 상위일자리 감소가 눈에 띄며, 청년층에서의 하위 일자리 증가는 주로 15~19세, 20~24세 연령층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 신규학졸자의 일자리 변화(2008~2014년)를 살펴보면, 하위일자리 증가는 반면 상위일자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2013~2014년) 일자리 변화는 1분위 일자리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신규학졸자가 얻는 일자리의 질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분위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주로 도·소매업,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문과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청년층 연령대별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2008~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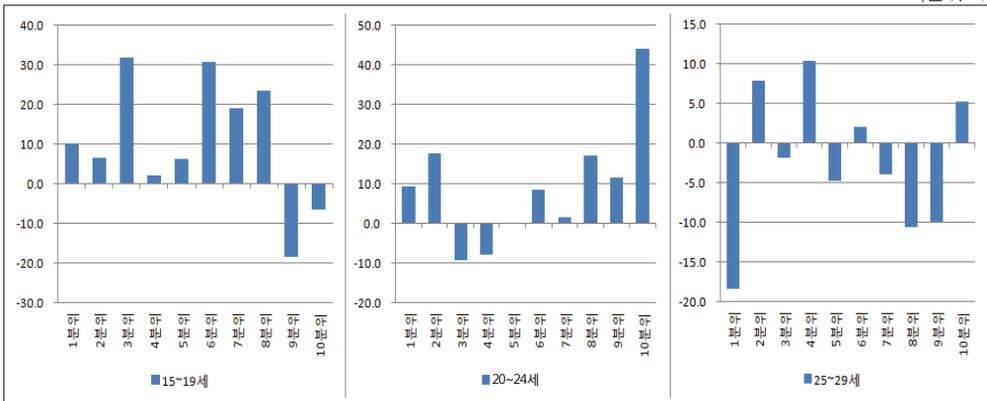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2] 청년층 연령대별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2013~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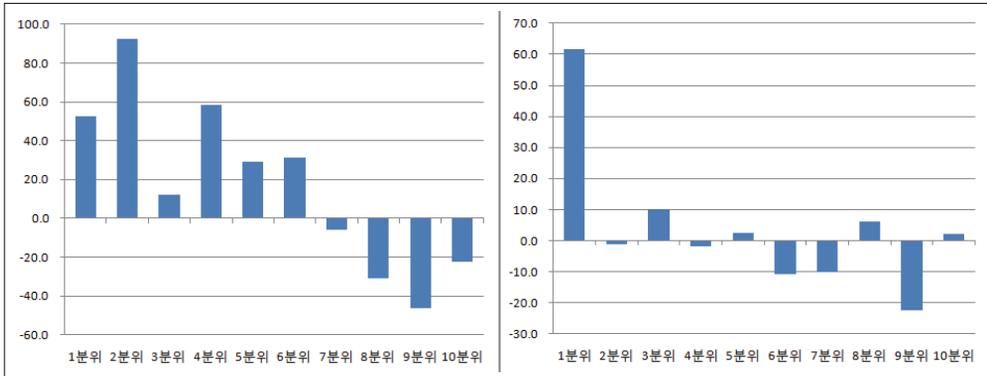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3] 청년층 신규학졸자의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2008~2014년, 2013~201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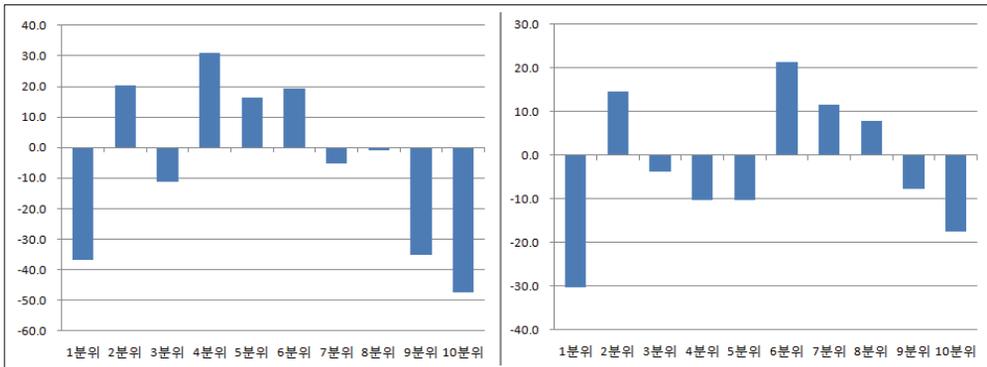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산업별로 보면, 청년층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는 주로 1분위, 9·10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상위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 9·10분위 일자리 감소는 주로 남성 25~29세를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1분위 일자리는 일용직과 장치·기계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눈에 띄는 것은 2013-2014년 일자리 변화에서 10분위에 해당하는 상위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하위일자리 위주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10분위 일자리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상용직 증가세에 힘입어 청년층에서도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하위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2014년에는 상위일 자리를 의미하는 8·9·

[그림 14] 청년층 제조업 부문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2008~2014년, 2013~201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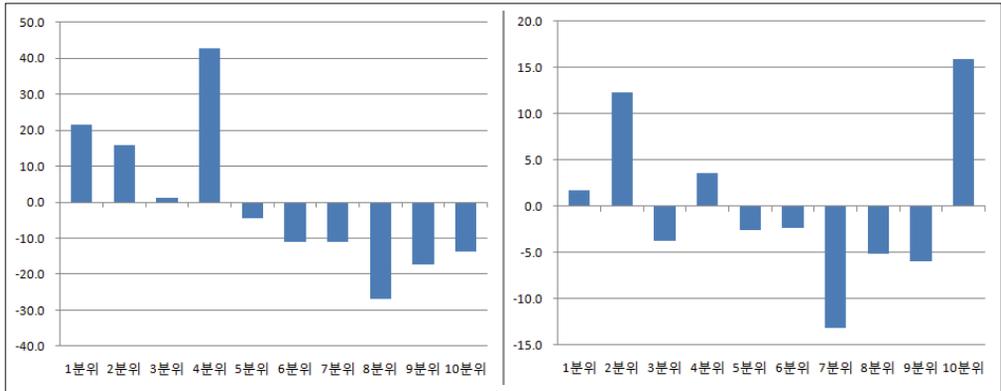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10분위 일자리의 증가율이 하락함으로써 최근 상용직 증가를 꺾은 일자리 증가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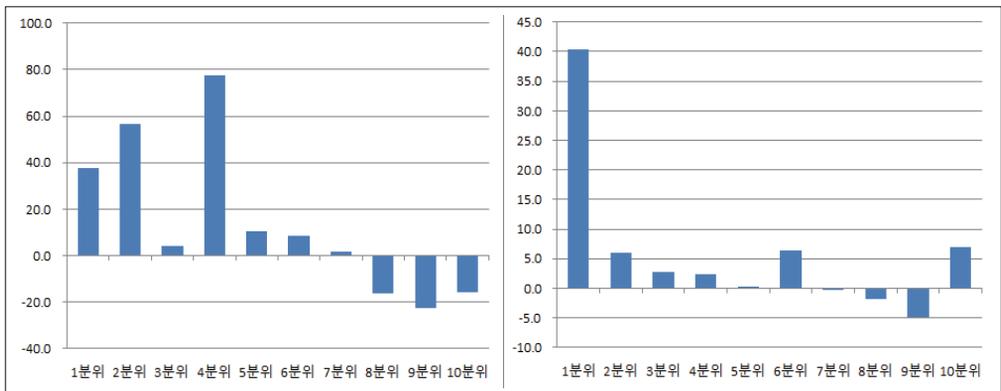
특히 상위일자리(2008~2014년)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하락한 반면 2013~2014년 동안 1분위 일자리 증가는 최근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청년층 서비스업 부문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2008~2014년, 2013~2014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6] 청년층 상용직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2008~2014년, 2013~2014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 V. 맺음말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L자형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은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 노동시장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직활동조차도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신규채용 규모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다행스럽게 일자리를 얻은 임금근로자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있고, 이들의 임금수준을 고려한 일자리 질(2008~2014년)은 괜찮은 일자리라 일컬어지는 상위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하위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2013~2014년) 청년층에서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는 상위일자리보다는 하위일자리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이들의 일자리 질이 상위일자리보다는 하위일자리 위주로 증가하는 일자리 변화는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일고 있는 변화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특히 신규학졸자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년층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KLI**

### <참고문헌>

전병유(2015),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양극화와 저임금노동』,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김세움(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Goos, Maarten and Alan Manning(2007), “Lousy and Lovely Jobs: the rising Polarization of Work in Britain”,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89(1).

U.S.Council of Economic Advisors(1996), “Job Creation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e U.S. Labor Market, 1993~1996”.

Wright, Erik Olin, and Rachel Dwyer(2003), “The Pattern of job expansion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ison of the 1960s and 1990s”, *Socio-Economic Review* 1(3).